

유아의 음악능력 발달에 미치는 가정의 음악적 환경 요인

윤 선 희*

차 례

- I. 서 론
- II. 국내의 선행연구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검사도구의 타당성 검증
 - 2. 가정의 음악적 환경 관련 질문지 분석
 - 3. 유아들의 음악능력과 가정의 음악환경과의 관계
- V. 결 론

I. 서 론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 중 음악교육 목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단서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55년의 1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통한 원만한 인격형성과 정서 함양」이 제 1목표이었으나 1973년의 3차 교육과정부터 「음악성과 창조성 계발 및 조화된 인격형성」에서 음악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교육목표는 1997년에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의 음악교육 목표인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로 좀 더 구체성을 띠게 되었으며 이 목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음악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유치원은 통합교육으로 운영되므로 특별히 유아 음악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표현생활의 내용체계에 여러 가지 소리 만들기, 노래 부르기, 리듬악기 다루기 등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음악활동이 중심이 되어 5개 영역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교육에서의 음악활동의 비중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의 음악성과 창의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음악성을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고 음악성과 관련된 용어도 상당히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음악성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음악성(musicality)이란 용어는 서양음악이 우리 교육에 접목되면서 음악교육학이나 음악 심리학적 측면에서 사용되었으며, 「개인의 음악적 능력이 그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 음악문화와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과 관련된 용어이다.¹⁾

그러나 이 음악성 외에도 음악적 능력(musical ability), 음악적 재능(musical talent), 음악적 적성(musical aptitude) 그리고 음악적 자질(musical capacity) 등과 같은 용어가 섞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음악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개념을 도출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성의 본질이 복잡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에 용어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사용하여 온 것이 한가지 이유라고 본다.

한편 함희주²⁾(1992)는 우리가 음악적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독일어의 Musickbegabung을 영미어의 Musical talent와 Musical ability 와 같은 의미이며, 우리가 음악성이라고 말하는 독일어의 Musikalität는 영어의 Musicality와 musical aptitude와 상응하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즉, Musicality와 Musical ability는 서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음악성은 음악적 능력보다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또, 조효임³⁾(1995)은 음악적 능력(musical ability)을 여러 가지 음가, 음정, 강약을 식별하는 능력이나 선율을 조화시키는 능력, 시창력,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과 숙련성을 의미한다고 했으며, 또 음악경험과 훈련 및 선천적 자질 등도 포함되는 복합적인 요소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주대창⁴⁾(2000)은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볼 때 음악적 능력이라는 용어가 개인

1) 함희주, 음악적 재능과 음악성, 음악과 민족, (1992), pp. 315~316.

2) 함희주, 전제서, pp. 315~316.

3) 조효임, 음악능력의 정의와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음악교육연구 14, (1995), p. 317.

4) 주대창, 음악성의 교육적 의미, 음악과 민족 19, (2000), p. 218.

의 드러나는 음악적 기능 및 태도가 자라나는 것을 표현하는데 유용하다고 했으며, 아울러 음악성이란 잠재적인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상위용어로 또 음악적 능력은 가치, 태도적 성향을 불충분하게 나타내기는 하지만 「드러난 또는 계발된 음악성」을 의미하는 하위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앞에 인용한 문헌 등에도 음악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명쾌하게 정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음악성은 잠재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음악적성과 매우 유사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며, 음악적 능력은 청음능력, 연주능력, 창작능력, 음악적 태도, 미적 수용능력이 포함되는 음악교육에서의 기능적 측면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한편 체계화된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성의 발달과정을 알아보는 객관적인 수단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음악성 검사는 이미 19C초부터 시도되었으나 체계적인 음악성 검사는 Seashore⁵⁾ (1919)가 높음이, 음세기, 음길이, 리듬, 음색, 음기억 등의 항목에 관해 개별적인 검사방법을 보완하여 발전시켜왔으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검사방법인 Gordon⁶⁾(1979)의 5~8세 용의 PMMA, 초등학교용의 IMMA 및 고등학생과 대학생 음악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AMMA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

Gordon 의 검사는 선율과 리듬의 구별능력에 집중되어 있어 연주나 창작능력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단순한 음을 지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음악적으로 연관성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검사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아들의 음악성 발달에 적절한 음악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들의 음악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환경이란 유아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 교재, 교구, 악기 등의 제반 여건과 주변환경에 더하여 가정의 음악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란 부모, 교사를 포함하는 인적환경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화환경 및 매체환경까지를 포함한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음악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방법으로 유아들이 선호하는 동요에 가장 많이 나오는 Rhythm을 손뼉치기로 음의 높고 낮은 음 구별하기 중심으로 유아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였고 아울러 유아들의 음악적 환경에 관해 학부모에게 설문지를 통해 질문하여 얻어진 결과가 유아들의 음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5) Seashore.C.E. The Psychology of Musical Talent. (1919). New York.

6) Gordon .E.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1979). G.I.A. Publications, , Chicago

7) 김명희, 유아의 음악적성과 음악환경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p. 21

II. 국내의 선행연구

유아음악교육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해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어 졌다.

김효순⁸⁾(1972)은 서울 시내 유치원 65곳을 대상으로 유아의 리듬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지도 방법, 리듬 교육을 위한 시설 및 문제점 등에 관해 질문지 방법과 현장 방문방법을 병행하여 연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신체활동, 청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리듬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며, 유치원아들의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리듬악기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악기를 구비하여야 할 것과 자연음을 듣고 신체 표현하는 방법 등에 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영숙⁹⁾(1986)도 서울 시내 유치원 및 유아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들의 학부모들을 상대적인 생활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질문지 방법에 의해 유아 음악 교육에 대한 태도 및 환경조성방법에 대한 의식의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가정의 음악교육 방법으로 생활수준이 상층인 경우에는 음악감상을 중 하층인 경우에는 노래부르기를 선호하였고, 이 경우에도 상층층은 울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층은 단순한 음악활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된 점이다. 즉 유아들의 음악성 계발과 관련하여 볼 때 생활수준의 차이가 큰 요인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본다.

또 박현숙¹⁰⁾(1993)은 대구시내의 피아노 학원과 피아노 교습소에 다니고 있는 유치원아와 초등학교1학년들의 학습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질문지방법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 교습기간은 유아들의 청음 이해도와 음악에 대한 흥미와 상관성이 있었으며 가족 구성원의 악기 관심도가 아동의 음악학습 능력 및 음악에 대한 흥미도와 상관성이 있었으나 오히려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음악에 대한 흥미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유아들의 음악성 발달과 음악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박명숙¹¹⁾(1983)은 유아의 음색, 음개념 발달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유아들은 센음이나 점점 세지는 음에 또 긴 음보다는 짧은 음에, 낮은 음보다는 높은 음에 더 반응이 높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유아들의 기초음악능력은 성별에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간에는 유의차가 있음을

8) 김효순, 유아의 리듬교육을 위한 환경분석-서울 시내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9) 이영숙, 가정의 아동 음악 환경에 대한 부모 태도 및 실태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10) 박현숙, 가정의 음악적 환경이 유아의 음악 학습능력과의 관계- 피아노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11) 박명숙, 유아의 음색, 음개념 발달에 관한 실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보고했다.

김영희¹²⁾(1983)는 유아의 기초음악능력을 검사하고 리듬, 음높이 감각, 음색의 파악 능력과 음악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음악환경이 좋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리듬과 음높이 파악 능력이 우월하였으며, 음악레슨은 리듬발달, 음높이, 음색 구별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 또 부모의 교육정도가 자녀의 음악능력발달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으며 유아들의 음악능력은 남녀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유애경¹³⁾(1985)도 음악능력발달에 미치는 음악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의 음악환경은 일반적인 교양, 부모의 음악경력, 유아의 음악적 활동, 가정의 음악적 분위기, 및 가족의 음악적 흥미 등으로 구분하고, 유아의 음악능력을 듣기, 리듬, 노래부르기, 악기 다루기 및 음악적 창의력으로 구분하여 상호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의 음악환경은 유아의 노래부르기에 큰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고, 음악능력발달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유아들의 지능과 음악능력 발달간에는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채길자¹⁴⁾(1994)는 Gordon의 음악 청취력 검사방법을 이용하여 유아들의 음악적 환경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연구한 결과, 5세 유아의 음악 청취력은 음감, 리듬감 모두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으며 가정의 음악적 환경은 유아의 음감과 유의성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자희¹⁵⁾(1995)는 유아의 음악성과 음악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보고에서 유아기에 양질의 풍부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의 음악적성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음악환경은 음악적성 중 리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 음악환경에 따른 유아의 음악적성에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소희¹⁶⁾(1998)는 리듬발달은 연령과 성별과는 무관하였으나 반대로 피치발달은 연령과 성별 모두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 아동의 리듬과 피치발달은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중 리듬발달은 가정에서 사용중인 음반수와 그리고 피치발달은 부모의 음악적 태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12) 김영희, 유아의 기초적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13) 유애경, 유아의 음악환경과 음악능력 발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14)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유아의 음악 청취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15) 이자희, 유아의 음악 적성과 음악환경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16) 이소희, 아동의 리듬과 피치발달 및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주에 소재한 2곳의 유치원에서 만 5세 반 남녀 61명과 자모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중 유아의 음악능력 검사 결과와 자모의 음악환경 관련 설문지 응답결과가 일치하는 5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 1>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생월 별 인원

'95. 3~5월		6~8월		9~11월		12~'96. 2월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	9	6	5	12	9	2	4	27	27

유아들의 음악능력 검사도구는 리듬과 멜로디의 구성요소인 음의 길이와 음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유아들의 자연스런 음악발달을 고려하여 음의 길이 10문항과 음의 높낮이 8문항 (부록 1)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음악환경과 관련된 질문지는 가정에서의 음악활동으로 6항목, 악기보유 현황 및 가족 중의 음악전공자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6항목은 긍정적인 답변은 3점, 중간 답변 2점, 가장 부정적인 답변은 1점으로 하여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단순상관과 F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2> 자모들의 설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

	음악렛슨			음악놀이			음악듣기			가족과 함께 노래 부르기			즉흥표현			소리 탐색		
점수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응답자	39	12	3	15	34	5	9	35	10	14	34	6	7	26	21	16	33	5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검사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능력, 검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또 유치원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예비적인 사전 검사를 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아들의 수준에 알맞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국내의 연구에도 박명숙(1983)이나 김명희(1983) 및 유애경(1985) 그리고 이자희(1995)등은 자체로 개발하였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기존의 검사도구를 개량하여 사용하였으며, 채길자(1994)는 Gordon의 PMMA방법으로 이소희(1998)는 Gordon의 이론에 입각한 프로젝트 스펙트럼 방법으로 음악성을 검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의 길이 및 음의 높낮이를 점정하여 얻어진 점수대별 분포는 <표 3>과 같고, 점수대의 구분을 80점 이상을 상, 50~70을 중, 그리고 40점 이하를 하로 나누었다.

<표 3> 음악 능력 점정 도구의 점수대별 분포

	음의 길이	음의 높낮이
상	15(27.8) ¹⁾	14(25.9)
중	21(38.9)	19(35.2)
하	18(33.3)	21(38.9)
계	54(100.0)	54(100.0)

1) ()는 백분율

<표 3>에서 볼 때 음악능력 검사 도구 중 음의 길이 측정도구가 음의 높낮이 측정도구보다 상위 점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이 길이보다는 높낮이에 대한 이해가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거나 또는 음의 높낮이 점정도구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표 3>의 결과를 평균점수로 나타내어 <표 4>에 수록하였다.

<표 4>음악능력 검정에 의한 평균 점수

	음의 길이	음의 높낮이
상	89.8±7.3 ¹⁾	85.8±9.0
중	62.1±8.4	60.0±8.5
하	32.0±8.3	30.4±8.3

1) 평균 ± 표준편차

<표 4>에서 보면 <표 3>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평균 점수는 음의 길이의 경우 중, 하 위 점수대의 평균이 약 2점 정도 높으나 오차의 범위에 포함되며, 음의 높낮이의 경우 평균점인 90점 보다 약 4.2점 낮은 경우이나 이것 역시 오차 범위에 포함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능력 점정도구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54명의 연구대상 유아들의 음의 길이와 음의 높낮이 검정결과를 가지고 Duncan의 다중 검정을 실시하여 점수분포의 신뢰성을 검토한 결과는<표 5>와 같다.

<표 5>음악능력 검정 점수의 Duncan의 다중 검정 결과

점수구획	음의길이		음의 높낮이	
	평균	5% 유의성	평균	5% 유의성
상	89.8	a	85.8	a
중	62.1	b	60.0	b
하	32.0	c	30.4	c

즉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의 길이나 음의 높낮이 검정 결과는 상, 중, 하 모두 중첩됨이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점정도구가 유아들의 음악능력 평가에 변별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가정의 음악적 환경 관련 질문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질문지는 <부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항의 선다형 문항과 보유

악기 및 보유 음향기기 각 1문항 씩, 그리고 아동들의 형제 자매 중 순위 등으로 구성되어 이전의 연구에서 조사된 내용보다는 매우 단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선다형 7문항 중 제 5번 문항인 가족 중 음악전공자에 관한 문항은 54명의 응답자중 부모는 1인, 가족 2인으로 응답되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보유악기는 탬버린이 43, 소고가 28, 리코도 27, 피아노가 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첼로와 바이얼린도 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음향 기기는 카세트 라디오가 39, 오디오가 36, CD플레이어가 30 그리고 노래방기기도 5대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조사항목은 음의 길이나 음의 높낮이와 같은 유아들 음악능력과 유의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아마도 이들 보유악기 중 탬버린, 소고, 리코더 등은 유아들의 형이나 누나 등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학습을 위한 도구로 보유하고 있을 뿐, 가정에서 유아들의 음악능력 발달과 관련된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음향기기도 아동들의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며 향후 이들 두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표 6>에는 음의 길이에 대한 검사결과를 점수별로 상, 중, 하로 구분하고 각 점수에 해당하는 가정에서의 음악환경 응답결과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표 6>음의 길이에 점수별 음악환경 응답결과

	음악레슨	악기놀이	음악듣기	가족노래	신체표현	소리탐색
상	2.76±0.44	2.52±0.53	2.04±0.68	2.24±0.57	1.72±0.79	2.12±0.67
중	2.56±0.61	2.21±0.71	1.74±0.65	1.95±0.78	1.74±0.65	2.16±0.77
하	2.78±0.67	2.22±0.44	2.00±0.50	2.33±0.50	1.78±0.44	2.22±0.44

<표 6>에서 볼 때 대부분의 유아들이 피아노 학원에서 음악레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에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는 사실은 다시금 조기 교육열을 실감시키는 결과이었다.

가정에서의 악기놀이, 가족노래 함께 부르기 및 소리 탐색 등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음악듣기 활동이 앞의 3항목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체표현을 하는 음악활동의 빈도가 가정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는 음의 높낮이에 대한 음악환경 응답결과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이다.

<표 7> 음의 높낮이의 점수별 음악환경 응답결과

	음악레슨	악기놀이	음악듣기	가족노래	신체표현	소리탐색
상	2.92±0.29	2.00±0.74	2.08±0.67	2.17±0.84	1.42±0.67	2.08±0.79
중	2.65±0.56	2.23±0.59	1.85±0.66	2.15±0.61	2.00±0.69	2.23±0.43
하	2.63±0.62	2.19±0.40	2.00±0.63	2.13±0.62	1.63±0.62	2.13±0.89

<표 7>도 <표 6>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음의 높낮이 점수분포가 상에 해당되는 유아들이 거의 모두 음악레슨을 받는다는 사실과, 동시에 신체표현활동이 가장 낮다는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표 6>과 <표 7>에서 볼 때 음악 능력 평가 점수는 가정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음악관련활동 항목 중 어떤 것이 특별히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표현과 음악듣기항목을 제외한 기타 4항목은 전체 응답자의 ⅔ 이상이 음악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아들의 음악능력과 가정의 음악환경과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유아들의 음악능력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5세 유아들은 1995년 3월~1996년 2월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연령별이라는 용어가 다소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록 5세 유아들이라도 생일이 빠른 유아와 늦은 유아간에 12개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생일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본 연구에서 평가한 음의 길이와 음의 높낮이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유아들의 연령과 음악능력과의 상관관계

구분	음의 길이 ¹⁾		음의 높낮이 ²⁾	
	상중하	상하	상중하	상하
	0.24	0.43*	0.27*	0.39*

1) 10% 유의성 2) 5% 유의성

<표 8>에서 보면 유아들의 연령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유아들이 획득한 점수와 상관계수를 알 수 있다. 음의 길이의 경우 연령과 상중하 점수 구분과는 10%의 범위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상위 점수를 획득한 경우와 하위점수를 획득한 아동들의 연령과의 상관관계는 5% 범위에서 유의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음의 높낮이 항목은 유아들의 연령과 상중하 점수, 상하 점수 모두가 5% 범위에서 유의성이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아동들의 가족 내 형제 자매중의 순위와 음악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나 특별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자녀 중에서는 둘째가 첫째 자녀보다 통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첫째 아이가 있는 경우 가정에서 함께 놀면서 음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혼자 있는 경우보다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추정된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음악관련 활동 항목 중 어떤 것이 뚜렷하게 음의 길이나 음의 높낮이와 같은 유아들의 음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불명확하였다. 그러므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표 9> 음의 길이와 가정의 음악환경 간의 상관관계

점수구분	상관종류	음악레슨	악기놀이	음악듣기	가족노래	신체표현	소리탐색
상	r value	0.04	0.07	0.08		0.01	0.06
	f value						
중	r value	0.10	0.41	0.27	NV	0.36	
	f value		3.94				
하	r value	0.10	0.49			0.19	
	f value						

*** 1% 유의성, ** 2.5% 유의성, * 5% 유의성, 10% 유의성

■ 는 상관관계에서 유의성이 있는 항목

NV: No value

<표 9>에서 볼 때 음의 길이 평가 점수 상을 획득한 유아들은 가족 노래와 1%범위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가족과 함께 자주 노래를 부르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음의 길이를 이해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중의 점수를 획득한 유아들은 소리탐색과 1% 범위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특기할 것은 하의 점수를 획득한 유아들은 가족 노래, 소리탐색, 음악듣기 항목에서 1% 범위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이들 항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가능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음악활동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10>에는 음의 높낮이 평가와 가정의 음악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0>음의 높낮이 평가와 가정의 음악환경과의 상관관계

점수구분	상관종류	음악레슨	악기놀이	음악듣기	가족노래	신체표현	소리탐색
상	r value	0.50	0.14	0.09	0.22	0.14	0.07
	f value	16.77***					
중	r value	0.17	0.08	0.28	0.08	0.54	N V
	f value		3.94				
하	r value	0.11	0.12	0.51	0.18	0.58	0.58
	f value			2.13		2.13	2.13

*** 1% 유의성, ** 2.5% 유의성, *5% 유의성, 10% 유의성

■는 상관관계에서 유의성이 있는 항목

NV: No value

<표 10>에서 볼 때 음의 높낮이 평가에서 상위점수를 획득한 유아들은 음악레슨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가 1%의 범위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음악레슨이 유아들의 음악능력 향상과 유관하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 하위 점수를 획득한 유아들도 많은 수가 음악레슨을 받는 것으로 응답되었는데 상관계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의 점수를 획득한 유아들은 신체표현과 10% 범위에서의 유의성이 인정되었을 뿐 여타의 항목과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의 점수를 획득한 유아들은 유일하게 신체표현 항목이 1% 범위에서의 유의성을, 소리탐색은 2.5% 범위에서의 유의성을 그리고 음악듣기는 10%범위에서의 유의성을 나타냈다.

<표 9>와 <표 10>에서 볼 때 가정에서의 음악적 환경은 어떤 경우 어떤 간에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의 발달에 다소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레슨과 악기놀이가 유아들의 음악능력 향상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음악듣기, 가족노래 신체표현이 비슷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리탐색이 가장 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며 신체표현하기 등의 비교적 가정에서 하기 쉬운 음악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V. 결 론

유아들의 음악능력과 가정의 음악환경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충남 공주시 소재 2개소의 유치원 5세 반 아동 5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음악능력 검정은 음의 길이와 음의 높낮이등 기초능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만든 검정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가정의 음악환경에 대하여 유아들의 부모에게 설문지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능력 검정도구는 점수의 분포, 유아들의 평균점수 등으로 미루어 검정도구로서의 사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또 부모들의 설문지 응답지 분석 결과 보육악기의 종류나 수는 본 연구에서 평가된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문항의 질문문항에서 가족 중 음악 전공자는 응답자가 적어 제외하고 음악레슨, 아기놀이, 음악듣기, 가족노래, 신체표현 및 소리 탐색 등 6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들의 음악능력은 남녀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으나 5세아를 3개월 단위로 나누어 검토한 연령과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중에는 둘째가 음악능력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음의 길이 검정결과 80점 이상의 상위점수를 획득한 유아들은 가족노래 부르기와 고도의 유의성을 보였으며 40점 이하의 하위점수를 획득한 유아들은 음악듣기, 가족 노래 부르기 및 소리탐색과 유의성이 있어 이들 하위 점수인 유아들에게는 이들 3항목이 음악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음의 높낮이 검정결과 80점 이상의 상위점수를 획득한 유아들은 음악레슨과 가장 높은 상관관을 보였고, 40점 이하의 유아들은 신체표현과 소리탐색이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유아들의 음악능력과 가정에서의 음악활동과는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내용적으로는 유아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자주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8). 유치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교육부고시 제1998-10호)
- 교육부. (1998). 초등학교교육과정 해설(V), 대한교과서 주식회사.(교육부고시 제1997-15호에 따른)
- 김명희. (2000). 유아의 음악적성과 음악환경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 (1983). 유아의 기초적 음악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위논문.
- 박명숙. (1983). 유아의 음색, 음개념 발달에 관한 실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애경. (1985). 유아의 음악환경과 음악능력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소희. (1998). 아동의 리듬과 피치발달 및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자희. (1995). 유아의 음악적성과 음악 환경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흥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조효임. (1995). 음악능력의 정의와 평가방법에 관한 고찰 음악교육 연구 14.
- 주대창. (2000). 음악성의 교육적 의미, 음악과 민족 19.
- 채길자. (1994). 가정의 음악적 환경과 유아의 음악 청취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함희주. (1992). 음악적 재능과 음악성, 음악과 민족 4.
- Gordon. E. (1979). *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 Chicago : G.I.A. Publications.
- Seashore, C. E. (1919). *The Psychology of Musical Talent*, New York : Mc Graw-Hill.

ABSTRACT

Musical Environment at home affected to the development of musical ability for preschoolers

Sun-Hee, Yoon

In order to kn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usical ability of preschoolers and their musical environment at home,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54 preschoolers of 5 year old from 2 different kindergartens at Gongju city.

Two basic music abilities, rhythm and pitch, were tested with new test tool which made by author, and the questionnaire test with mothers of participants were carried out.

The new test tool of musical ability was certified enough to use for test purpose regarding as distribution of acquired points and average marks, etc..

Also there is no close relation between musical ability of children and the number and kind of musical instruments at home. The 6 item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such as music lesson, playing instruments, music listening, singing with family, movement and exploring sound.

General musical ability among tested children was no significants with sex difference, nevertheless it wa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irth date of 3 month interval unit.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correlation, the second child showed higher musical ability in average than the first.

In rhythm test, the singing with family showed higher correlation with the group of over 80 point, also music listening, singing with family and exploring sound were the same with the group of under 40 point. So, it should be needed to enforce those items for lower acquired points group to increase for their musical ability.

In Pitch test, the higher point group over 80 showed higher correlation with music lesson, also movement and exploring sound were with the lower point group under 40. The

systematic music lesson to preschooler could be helpful to develop their musical ability.

Conclusionally, it was certified that musical ability of preschooler was related to musical environment at home, so it should be needed to play various musical activities with children's interest for development of musical ability of preschoolers.

〈부 록〉

★ 음의 길이

1-1) 선생님이 치는 손뼉치기를 듣고 따라해 보자

(· 리듬만 들려주세요 · 두 번씩 들려주세요 · 한 문항당 10점입니다.)

4/4 박 자

1-① ♩ ♩ ♩ ♩ 1-② ♩ ♩ ♩ ♩
1-③ ♩ ♩ ♩ ♩ 1-④ ♩ ♩ ♩ ♩

3/4 박 자

1-⑤ ♩ ♩ ♩ ♩ ♩
1-⑥ ♩ ♩ ♩ ♩ ♩ 1-⑦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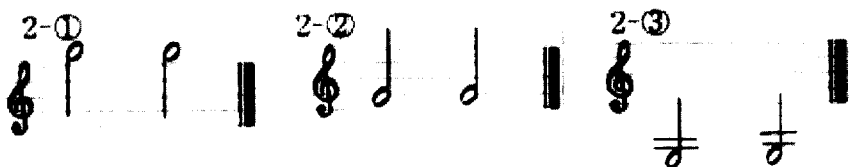
2/4 박 자

1-⑧ ♩ ♩ 1-⑨ ♩ ♩ ♩ 1-⑩ ♩ ♩

★ 음의 높낮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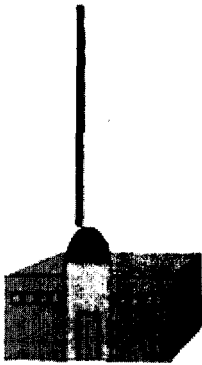
2-1) 선생님이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높은 음이라고 생각되면 깃발이 짙 그림보다 높이 있는 그림카드를 들어보고 중간 음이라고 생각되면 깃 옆에 깃발이 있는 그림카드를 또, 낮은 음이라고 생각되면 깃 밑에 깃발이 있는 그림카드를 들어보자.

(· 어린이가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두 번씩 들려 주세요 · 한 문항당 10점입니다.
· ① ② ③번을 미리 들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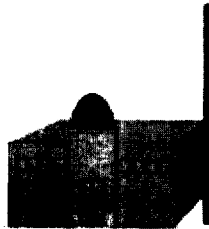


※ 검사카드

1



2



3



- 2-2) 선생님이 피아노를 두 번 칠때 두 소리가 같은 소리로 들리는지 다른 소리로 들리는지 이야기해보자. (· 어린이가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두 번씩 들려 주세요 · 한 문항당 10점입니다.)

2-④



2-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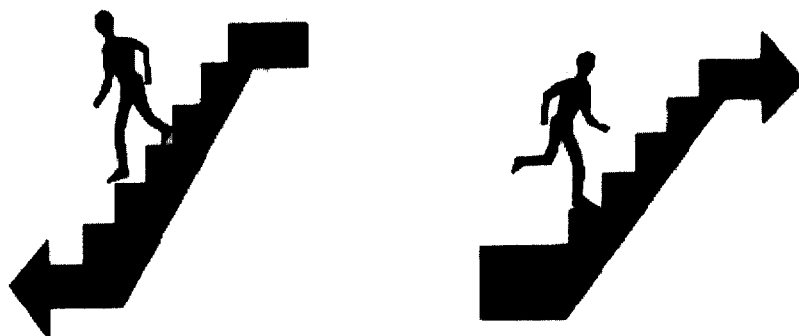
- 2-3) 선생님이 들려주는 피아노 소리가 계단을 차례대로 내려가는 소리로 들리면 내려가는 그림카드를 올라가는 소리로 들리면 올라가는 그림카드를 들어보자
 (· 어린이가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두 번째 들려 주세요 · 한 문항당 10점입니다.)



- 2-4) 선생님이 들려주는 피아노 소리가 계단을 차례대로 내려가는 소리로 들리면 내려가는 그림카드를 올라가는 소리로 들리면 올라가는 그림카드를 들어보자
 (· 어린이가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두 번째 들려 주세요 · 한 문항당 10점입니다.)



※ 검사용 카드



2-5) 선생님이 노래를 두 번 불러 줄 건데 같은 음으로 들리는지 다른 음으로 들리는지 이야기해보자

(※ · 어린이가 피아노 건반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 두 번째 들려 주세요 · 30점입니다)

